

수요예배 및 구역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저녁 7시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인 도 : 가족 중에서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주일말씀과 삶의 나눔 / 주일예배 말씀의 은혜와 삶을 서로 나눕니다.
- 성경봉독 / “사무엘상서(삼상)21:1-9(p.446) 가족 중에서
- 말 씀 /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다윗”

우리는 환난과 곤궁과 위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어려운 자를 도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찾으며,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뜻을 따라 갑니까?

1. 다윗이 사울을 피해 요나단과 헤어진 후 찾아간 사람은 누구이며, 다윗이 그에게 한 말과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1-3절)

다윗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1절).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임무를 명령받아 내려서 왔는데 왕이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해서 다윗의 소년들을 약속된 곳으로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2절) 아히멜렉의 수중에 있는 것은 떡이든 뭐든 다 제공해 달라고 했습니다(3절). 놉은 제사장이 거주했던 작은 성읍이었는데 다윗은 그 곳에 있는 성전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다급히 도망치느라 식량도 무기도 없는 다윗은 제사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도와주십니다(시50:15).

2. 다윗의 행동과 요구에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떻게 반응하였으며, 다윗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1,4-6절)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어찌하여 함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혼자 왔느냐고 하면서 두려워 떨며 다윗을 영접했고(1절), 보통 떡은 떨어져서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는데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앉았으면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4절). 그러자 다윗은 삼 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하다고 하였습니다(5절). 이에 제사장은 거룩한 떡 즉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인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6절). 아히멜렉은 다윗의 행색을 보고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다윗을 영접은 하되 두려워 떨며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인 안식일마다 더운 새 떡으로 바꾸면 나오는 물려낸 떡인 진설병을 먹을 수 있게 제공합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결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이 생

명의 공급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아히멜렉은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창조 22:10) 다윗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위기와 궁지에서 건져 주십니다.

3.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요구한 것은 무엇이며, 제사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8-9절)

식사 문제를 해결한 다윗은 또 다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급하게 움직이느라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창이나 칼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자(8절) 제사장은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 밖에 없으면서 가져가려면 가져가라고 하니 다윗은 골리앗의 칼이라면 더욱 좋다고 하면서 달라고 했습니다(9절). 놉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얻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힘과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물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4. 그때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이며, 이 사람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7절, 참조 22:9-10)

이렇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도망친 다윗을 배려해 주고 있을 때 그 성전에 에돔 사람이며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사울의 신하 도엑이라는 사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7절). 도엑은 이러한 모습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이 도망친 다윗에 대해서 자기에게 보고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화를 낼 때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자기가 보았던 것을 사울에게 보고한 후 사울의 명령을 따라 놉의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참조 22:6-19).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하려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 나눔과 기도 / 다같이

1. 위기가 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어려운 자를 도울 때도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2.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경건한 사순절의 절기 되게 하소서.
3. 개학을 한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미래비전도 보여주소서.
4. 유치부에 좋은 교역자를 속히 보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소서.
5. 조합과의 합의안대로 잘 마무리되고,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도 잘 되게 하소서.
6. 새로 선출된 제20대 대통령을 붙들어 주셔서 잘 통치하게 하시고, 전국동시 지방선거(6/1) 가운데도 간섭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7.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 주시고, 자유와 진리가 이기게 하소서.

● 마무리 기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양/새375장(통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 ● 주기도문 / 다같이